

선한 기술로 비영리를 돕는다

돕는 사람 돕는 기술 테크포임팩트 이야기

‘1만 유기동물의 가족을 찾아줄 채팅서비스 함께 만들어요!’

올해 초 카카오 사내 공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유기동물 보호소와 입양자를 연결해 주는 ‘포인핸드’ 앱에 탑재할 채팅서비스 개발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카카오 사내 메시지 개발팀에서 일하는 우혜진씨는 “따뜻하고 재능 많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문구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그는 “포인핸드를 통해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입양했다”면서 “채팅서비스 개발은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해서 큰 고민 없이 돕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국내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선도해 온 포인핸드 플랫폼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모였다. 보수도 없고 시간과 재능을 써야 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프로젝트다. 프리랜서 개발자도 지원했고 우혜진씨처럼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도 참여했다. 경력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포인핸드랩’을 꾸렸고 6월부터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포인핸드 플랫폼에 챗봇 서비스를 추가해 ‘파양’ 비율을 줄이는 게 목표다.

포인핸드랩은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가 진행 중인 ‘테크포임팩트’(Tech for Impact) 사업의 하나다. 테크포임팩트는 ‘기술이 임팩트를 가속한다’는 카카오임팩트의 운영 철학에 따라 지난해 시작했다. ‘기술을 보유한 IT 개발자’와 ‘기술이 필요한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카카오임팩트는 두 집단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원과 인프라를 지원한다.

개발자와 사회혁신가를 연결하라

테크포임팩트는 현직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테크포임팩트 커뮤니티’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양대 축으로 운영된다. 이 중에서도 ‘커뮤니티’는 개발자들의 모임인 ‘모두의연구소’와 협력해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공정한 뒤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를 모집하고 연구모임 ‘랩(LAB)’을 꾸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가동 중인 랩은 유기동물 보호소와 입양자를 연결하는 ‘포인핸드랩’,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해 AI로 드론 영상을 분석하는 ‘DVA

랩-AI모델개발팀’, 분석 결과를 웹서비스로 개발하는 ‘DVA랩-서비스팀’ 등 3개다.

포인핸드는 회원 5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이다.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올라오는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의 축종별 입양 공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매년 1만 마리가 포인핸드 앱을 통해 새가족을 찾는다. 전국에서 입양되는 유기동물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입양 절차가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입양자가 보호소로 전화를 걸어 입양 의사를 전달하면 보호소에서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입양자로 적합한지 확인한 뒤 신청서를 받는다. 보호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입양 절차가 늦어지고 입양 이후 추적 관찰도 어렵다.

포인핸드랩은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오랜 팀빌딩 기간을 거쳐 카카오 직원인 우혜진씨가 채팅서비스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랩장’을 맡았다.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필수 절차를 자동화하고 채팅으로 보호소와 입양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우혜진 랩장은 “현재 개발 중인 채팅 서비스는 입양 과정의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입양자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면서 “궁극적으로 유기동물 파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는 테크포임팩트 프로젝트를 ‘날개’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입양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미뤄왔다”면서 “간단한 개발 작업에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10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회적기업으로서 기술 개발에 비용을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테크포임팩트가 유기 동물 입양 문화 확산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말했다.

돈 되는 기술을 돕는 기술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하는 ‘DVA랩’도 개발 업무에 한창이다. 지난해 초기 모델을 개발한 1기에 이어 올해 5월 기술 고도화와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2기가 출범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5면 ‘테크포임팩트’로 계속



그들의 기부에는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필란트로피의 세계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한 ‘19세기 기부왕’ 앤드루 카네기부터, 4년 만에 20조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신흥 강자 매켄지 스콧까지. 세상을 바꾸는 기부자들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등장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빌 게이츠와 마이클 블룸버그를 필두로 새로운 기부 철학과 방식을 가진 ‘뉴 필란트로피스트’(New Philanthropist)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10년 새 이들을 롤 모델 삼는 고액기부자들이 나타나 기부 생태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뉴 필란트로피스트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어떤 기부를 하고 있을까.

국내 소셜섹터 전문가 5인(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뉴 필



빌 게이츠(왼쪽)와 워런 버핏. [사진 GatesNotes.com]

란트로피스트들의 기부에서 발견되는 다섯 가지 공통점을 정리했다.

누가 ‘뉴 필란트로피스트’인가

전문가들은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 워런 버핏, 피에르 오미디아르, 크리스토퍼

퍼 혼, 일론 머스크, 피터 디아만디스, 매켄지 스콧 등을 뉴 필란트로피스트의 대표 주자로 꼽았다. 국내 인물로는 김범수·김봉진·김강석·이재웅·정경선 등을 거론했다.

이들의 기부에서 찾아낸 첫 번째 공통점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뉴 필란트로피스트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하며 기후 위기·교육격차·소득불균형 등 거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기부 전략을 수립한다.

단일 프로젝트나 목표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빅벳필란트로피(Big Bet Philanthropy)’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빌 게이츠가 소아마비 종식을 목표로 20년에 걸쳐 62억 달러(약 8조3000억원)를 투입한 게 대표적 사례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3면 ‘필란트로피’로 계속

Inside

- 세상을 구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연대 C2
- ‘아시안 론제비티 포럼’ 출범식 현장 C3
- 자원봉사 기록을 만나다 C4
- ‘돕는AI’로 사회문제 해결합니다 C5
- 477가지 아이디어, 지구를 지키다 C6
- 조금 느린 인턴들의 회사 적응기 C7

더버터 스페셜:

김정태 MYSC 대표 인터뷰 C8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취재팀: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공익사업팀: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문의 및 제보: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자본가들, 사회문제 해결 위한 연대를 시작하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인터뷰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를 대규모의 자본으로 '끝장내자'는 기부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월드비전은 기존 마을 단위의 국제개발 활동을 국가 레벨로 끌어올려 한 가지 문제만큼은 완전히 해결하는 '피니시 더 잡(Finish the Job)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잠비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탄자니아의 산림을 복원하고, 에티오피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대한 목표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에서 만난 조명환 회장은 "초고액 후원자들의 연대로 특정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라며 "후원자가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함께 디자인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스케일이지만, 이미 성공 사례는 있습니다. 미국 월드비전이 르완다의 물 문제를 100% 해결하는 '캐피탈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진행하면서 월드비전이 일하는 르완다의 모든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물 걱정 없이 살게 됐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나요.

"5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초고액 기부자의 참여로 가능한 일이었죠."

-그 큰돈을 어떻게 모으나요.

"올해 4월에 초고액 기부자 500여 명이 모이는 월드비전 콘퍼런스에 초청돼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한 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집중되면 비교적 단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초고액 기부자를 '후원자(donor)' 대신 '투자자(investor)'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권송 더버터 기자

갔어요. 식수사업 프리젠테이션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니 객석에서 누가 손을 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해요. 그래서 200억원이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내가 내겠다'고 말해요. 박수가 쏟아졌죠."

-영화 같은 일이에요.

"프리젠테이션 무대에 올라 사업 설명하던 사람도 후원자예요. 그들이 직접 돈을 내고 전략을 짜고 추가 후원자들을 모아요. 진짜 후원자 주도형 프로젝트인 거죠. 사흘간 콘퍼런스 자리에서 모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1400억원입니다. 상당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고액 후원자들은 경영체를 운영해 본 사람이 많은데, 국제개발 사업도 경영하듯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수입-지출을 들여다보고 사업 결과보고도 받는 거죠. 자본가들이 돈 많다고 기부하지 않아요. 그런 재미를

느낄만한 자본가들이 한국에도 많다고 생각해요."

-현재 중점을 두는 프로젝트는 뭔가요.

"잠비아에서 물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미국월드비전이 르완다 사업을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공동 추진하기로 했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기후변화로 민둥산이 된 산림을 복원하고 경제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나무를 다시 심는 건 아니고요. 땅속에 남은 나무의 뿌리를 되살리

는 'FMNR(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기술로 산림을 복원하고 탄소배출권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기관의 협조도 필요하겠네요.

"큰 단위의 돈이 특정 주제로 쓰이면 현지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프로젝트 이후 시설을 지속 관리하고, 국가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그 약속을 받아내고요.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민관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국내 사업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나요.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법률 전문가 그룹과 함께 발굴 체계 구축부터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가족 회복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선포식 당시 31명이던 전문위원이 1년 새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캠페인 전략을 조언하고, 잠재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부자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학계에서 연구자로 업적을 쌓은 분들이죠."

-이번 캠페인의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요.

"1000억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 꾸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후원자들이 하나둘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호모악티부스

부자들의 '기부 공부'



김시연 더버터 편집장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잘 쓰는 건 훨씬 더 어렵네요." 비즈니스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마음먹고 기부를 시작할 때 늘 하는 이야기다. 영리를 성공시킨 것처럼 기부에서도 성공할 자신이 있다며 확신하던 사람들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곧 깨닫게 된다.

마리오 모리노(Mario Morino)는 1970년대 초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해 업계 10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미국의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다. 1992년 영리에서 완전히 은퇴한 그는 기부와 자선 활동을 하면서 남은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모리노는 돈이 많았지만, 효과적인 자선 활동을 위해서는 돈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돈을 잘 쓰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공부'였다.

모리노는 1년 반 동안 7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만나 비영리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부했다. 이후 8년을 더 연구해 '벤처 필란트로피 파트너스(VPP)'를 설립했다. 그는 VPP를 통해

비영리 조직에 필요한 자금과 전략을 20년 넘게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 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고 기회를 늘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기부를 공부하는 부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만난 김봉진-설보미 부부는 배달의민족 창업과 엑시트로 누리게 된 부를 어떻게 잘 나눌지 고민하고 있었다. 부부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더 기빙 플레이'에 가입하면서 재산 절반 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떠밀리듯 기부금을 쓰는 게 싫어서 재단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부와 비영리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연구하는 소규모 조직 '봉앤설'을 만들었다.

자신만의 기부를 차근차근 펼치고 있는 김강석 블루홀(크래프톤) 공동창업자는 '존중'과 '경청'이라는 특유의 방식으로 기부를 배워가고 있다. 비영리 조직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감하면서 생태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자들의 공부 가 쌓이고 있다. 20년 후에 이들이 어떤 기부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위대한 기부자들의 성장기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호모악티부스(Homo Activus)=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인류

버터폴(Butter Poll)

'제2의 동락가' 가능할까

지난 4년간 비영리 활동가들의 보급자리 역할을 했던 '동락가(同樂家)' 운영이 올해 종료됩니다. 동락가를 소유 중인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락가는 이준용(86) DL그룹 명예회장이 1985년부터 33년 동안 거주했던 단독주택입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주택으로, 현 시세는 270억~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 이 집을 기부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4월 재단은 이 집을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달라'며 다음세대재단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동락가에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비영리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동락가 출신 비영리 스타트업은 총 27곳.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다시입다연구소', 무업 청년을 위한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니트생활자' 등이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초기 비영리조직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락가를 방문한 누적 인원은 총 5174명. 건



서울 종로구 '동락가'에 입주한 비영리스타트업 구성원들. [사진 다음세대재단]

물을 기부한 이준용 회장도 동락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살던 집이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집을 무상임대해준 바보의나눔은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동락가가 '호화 주택'으로 분류돼 8500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듬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지만, 여전히 연간 3000만원 넘는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바보의나눔이 부담한 세금만 1억 7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에는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지원 프로그램은 꽤 있지만, 비영리를 위한 공간 지원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동락가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

해지면서 비영리스타트업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신생 비영리단체에 임대료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인지 아직 동락가 매입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합니다. 동락가를 매입해 다시 비영리의 품으로 돌려줄 '동 큰 기부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이어갈 새로운 공간을 찾는 중입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부동산에 지금처럼 보유세가 부과되는 한 '제2의 동락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면서 "세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락가는 기부받은 부동산을 '비영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기부 사례로 꼽힌다"면서 "이런 새로운 기부가 이어져야 비영리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치는 더버터 기자

◆버터폴 설문=제2의 동락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제도 개선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일까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어 투표해주세요!



관행 깨는 기부 방식... 뉴 필란트로피스트가 온다

▶ 1번 '필란트로피'에서 계속

빌게이츠재단의 노력으로 소아마비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종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범수 설립자가 만든 브라이언임팩트가 최초로 '프리비벳' 단계의 필란트로피를 실행 중이다.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스케일업이 필요한 비영리단체에 최대 수십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 관행을 깨는 새로운 기부 방식을 취한다. 임성택 변호사는 "매켄지 스콧의 행보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다. 스콧은 2019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하면서 약 360억 달러(약 50조원)의 재산을 분할받았고, 그해 곧바로 '재산 절반 기부'를 선언했다. 임 변호사는 "기부 규모나 속도도 놀랍지만 기존의 기부 관행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부한다는 게 흥미롭다"면서 "조용한 심사를 통해 깜짝 기부를 하고 최근에는 '공개 오디오'를 통해 숨은 단체들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부자를 탄생시킬 촉매제

세 번째 공통점은 기부한 조직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며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점이다.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회문제를 잘 해결할 역량 있는 조직을 선택하고 이들을 돕는 역할을 자처한다.

방대욱 대표는 "기부자와 단체가 끈끈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란트로피의 핵심"이라면서 "기부자는 믿어야 하고 단체는 그 믿음에 걸맞은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부자의 '선함'과 기부받는 쪽의 '탁월함'이 만났을 때 서로 믿고 기부하는 신뢰 자본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에르 오미디야르, 말린다 게이츠, 김강석, 빌 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 김봉진, 설보미, 매켄지 스콧.

네 번째, 사용처에 제약이 없는 유연한 기부금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김강석 블루홀(현 크래프톤) 공동창업자가 만든 'IP1 기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비영리 생태계는 왜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그는 비영리로 흘러가는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금 사용처에 제약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비영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2022년 36억원을 출연해 IP1

기금을 조성하고 루트임팩트에 운영을 맡겼다. 이 기금은 비영리 조직 10곳에 각각 최대 3억원의 제약 없는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신애 이사는 "기부자가 돈의 쓰임

을 통제하지 않고 단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자유를 주면 갑작스러운 위기나 기회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제약 없는 기부금은 단체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잘 알려진 단체보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진 새로운 기부처를 선호한다. 도현명 대표는 "뉴 필란트로피스트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선도하고 싶어한다"면서 "자원의 투입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솔루션의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지도 높은 비영리단체, 대학교 등을 제쳐두고 비영리스타트업, 새로운 이니셔티브, 임팩트스타트업 등에 기부하는 이유는 당장의 아웃풋보다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재형 대표는 "이런 기부자들이 늘어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까지 구석구석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성택 대표는 "이전까지 한국의 기부자들은 주로 자선적 기부에 집중했다"며 "급한 불을 끄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뉴 필란트로피스트의 등장이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 기부 관행에 변화를 일으켜 지속가능한 비영리 생태계를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형 대표는 뉴 필란트로피스트를 '혁신가(innovator)'라 표현했다. 그는 "혁신가를 따르는 또 다른 혁신자들,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어 더 많은 새로운 기부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섹터 용어사전 필란트로피(Philanthropy)를 아시나요?

'필란트로피'는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낯선 용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한국어로는 정확히 대체할 단어가 없다. 자선·기부·박애·나눔 등으로 풀이되지만 딱 맞는 표현은 아니다.

필란트로피는 채리티(Charity)와

자주 비교된다. 채리티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동정심·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기부나 도움을 뜻한다.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자선 행위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필란트로피는 사랑이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 필로스(Philos)와 인류를 뜻하는 안트로포스(Anthropos)가 합쳐진 말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인류애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조직에 돈을 기부하거나 공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필란트로피라고 한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사회문제의 해법은 건강한 공론장에서 시작된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 사회에 정의와 공정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기억한다. 자신의 저서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나라인 동시에 그가 주장하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욕구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샌델 교수가 오로지 한국 독자만을 대상으로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라는 책을 펴냈다. 책 출간을 기념해 더버터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 책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공정과 정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실마

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그레이존'(회색지대)에 속한 인물이다. 정치 진영에서 정의나 공정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때 좌우 가리지 않고 샌델 교수의 철학을 인용하면서다. 그는 "정치적 수사에 지지 않기 위해 더욱 건강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폭넓

은 토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샌델 교수의 독특한 강의 방법으로 잘 알려진 '문답식 강의'는 이를 위한 교육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사진 넷마루]



기사 전문바로보기

초고령사회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라... '아시안 롱제비티 포럼' 출범

(Longevity·장수)

'아시안 롱제비티 포럼(ALF·Asian Longevity Forum)'이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

ALF는 '론제비티(장수)'라는 키워드 아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사회 이슈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플랫폼이다. 기업·비영리·학계·법조·인문·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금융·건강·일자리·주거·돌봄·가족통합·세대교류·공동체회복·유산기부·자원봉사·복지정책 등 장수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ALF사무국이

초청한 24개 기업·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포럼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했다.

ALF사무국을 이끄는 김시원 더버터 대표는 "나이 늙(Aging)에 초점이 맞춰진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를 넘어 '오래 사는 삶' 그 자체에 집중하는 론제비티라는 단어를 확산하고자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 ▶세대공감과 사회통합 ▶포용 기술과 혁신 비즈니스 확산 ▶정책과 제도 개선 등 포럼의 네 가지 목표를 공표했다.

출범식에서는 이해영 아쇼카한국 대표, 이보람 씨드에이지 대표, 장희수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업·비영리·학계·법조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안 롱제비티 포럼(ALF)' 출범식이 열렸다.

이건송 더버터 기자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 연구원,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AI SaaS 비즈니스 리더, 이한복 에버영피플 대표,

조한중 강서50플러스센터 센터장 등 6명의 전문가들이 론제비티 관점에서 각자의 인사이트를 나눴다.

ALF사무국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산하에 2개 분과를 구성,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분기 중에 다양한 섹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한 섹터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령사회 분야의 혁신도 연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안 롱제비티 포럼이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한 단계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

자원봉사는 어떻게 세계기록유산이 됐나

9월 한 달 '자원봉사아카이브 10주년 특별전' 열려

2007년 12월, 서해안의 한 해변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해상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기름띠는 조류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왔다. 이들은 추위와 악취 속에도 바닷가 곳곳의 바위와 자갈에 달라붙은 기름 때를 닦고 또 닦았다. 파도가 한 번 치면 바위에 검은 기름때가 다시 묻었지만 멈출 순 없었다.

자원봉사자 물결은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됐다. 누적 봉사자는 123만 명에 이른다.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는 당시 피해 복구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등재 기록물 이름은 '태안 기름유출 복구 기념물(TAEAN OIL SPILL RESTORATION MEMORIAL)'. 유네스코는 "사고 발생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기록한 방대한 기념물"이라며 "특히 자원봉사자 123만명 참여로 단기간에 복구를 이뤄낸 성숙한 시민의식이 잘 나타나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사고 발생 15주년이던 해, 차곡차곡 모아둔 기록은 유산이 됐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 마을에서 '자원봉사아카이브 10주년 특별전'이 시작됐다.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서해안 유류피해 복구 사진을 포함해 우리나라 자원봉사 역사를 훑어볼 수 있는 주요 기록물들이 소개된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수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의 순간을 담은 자원봉사 기록물을 지난 10년간 '자원봉사아카이브' 플랫폼에 정리했다"면서 "역사 속 주요 사건, 자원봉사자의 경험 등을 발굴하고 정리해 공공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이야기, 역사가 되다

전시장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존한 사진과 영상 자료부터 개인과 단체가 기증한 현장 물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광복 이후

1950~1960년대 기록물에는 수재민을 돕는 전국적인 구호 활동이 돋보인다. 1963년 대한뉴스 제424호에는 영호남 지역의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무료 진료반의 모습과 구호품 모집운동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70년대에는 대학생들의 농어촌 봉사활동이 눈에 띈다.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 마을을 찾은 대학생들이 일손을 도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담장과 지붕을 개량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봉사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아계임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봉사자들의 힘은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올림픽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총 2만7221명이다. 당시 조직위원회에서 투입한 전체 인력의 약 55% 수준이다. 이들은 관람객 안내, 행정, 차량서비스, 통·번역, 분실물 처리, 숙소 청소 등 현장 곳곳에서 활약했다.

전시에서는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였던 이장원씨가 기증한 물품들을 만날 수 있다. 통·번역 요원에게 지급됐던 녹색 재킷, 넥타이, 벨트, 깃발, 자원봉사자 출입증까지 다양하다. 그는 "개인의 봉사활동이 사회적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라며 "아주 짧고 사소한 기록이나 사진 한 장이라도 기억을 되살리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 주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민간봉사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4년 전국자원봉사대축제 관련 기록물을 보면 '1년 중 하루라도 봉사에 참여하자'는 취지에 맞춰 한 해 32만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다. 해외 자원봉사 파견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2000년대에는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유출사고 복구 봉사(2007),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2014), 평창동계올림픽 지원(2018),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봉사

(2018), 코로나 팬데믹 지원(2020) 등 사회적 위기 때마다 봉사자들의 힘으로 극복해 왔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유산

전시에는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들도 대거 포함됐다. 자원봉사 조끼, 수재의 연금 증서, 개인 봉사일지 등 한 시대를 살아낸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록물들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순간을 담은 장롱 속 사진을 찾습니다' '나의 첫 자원봉사 기록물을 기증하세요' 등의 메시지로 아카이빙 사업의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렇게 10년간 수집한 기록물이 총 1만7862건에 이른다.

최근 사업 10주년을 맞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아카이브 홈페이지 월간 방문객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자원봉사 기록물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진화하는 자원봉사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들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조강하면 서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넘어,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빙'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공통의 관심과 취향으로 모인 '팬덤'도 자원봉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BTS 팬덤인 '아미'들은 2022년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에서 자발적으로 '팀아미 봉사단'을 결성해 안전·의료·통역 요원을 배치하고 전 세계에서 온 5만여 명의 관객을 안내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지역별로 대면 봉사모임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아카이브는 자원봉사의 경험과 성과를 융합하는 경험발전소로, 자원봉사 생태계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플랫폼"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달 열리는 '자원봉사아카이브 특별전'을 찾아 자원봉사의 흥미로운 역사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기록으로 기억하는 자원봉사

1946~1960년	전쟁 고아 구호사업 YWCA 자원봉사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부산으로 피난한 가운데서도 전쟁 고아를 돕는 활동을 이어갔다.	
1962년	대학생 문맹퇴치 계몽활동 국가 정책과제로 떠오른 문맹퇴치에 교사와 대학생, 일반시민이 교육봉사자로 나섰다. 주로 야학 형태나 농한기를 이용한 활동이 주를 이뤘다.	
1985년	88서울올림픽 1985년 10월 시작된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에 11만6294명이 응모했다. 접수가 밀려들어 마감일을 열흘 연장했다. 선발된 봉사자는 2만7221명이었다.	
1994년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나누는 기쁨 베푸는 보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원봉사 동아리 캠페인이 시작됐다. 11월 진행된 '제1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를 통해 32만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유출사고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기름때 묻은 돌을 손으로 닦아냈다. 당시 123만명의 봉사자들이 '태안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자원봉사자 9만2039명이 식사제공, 의료지원, 법률상담, 심리안정, 방역 등에 나서며 고통에 함께했다.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부터 2년9개월간 약 516만명의 봉사자가 방역소독, 홍보, 공공장소 방역지원, 마스크 제작 배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자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국가기록원, 한국YWCA연합회

자원봉사기록의 행간을 읽다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코로나 시기 어느 여름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혹시 희망달서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분 맞죠?' 25년 전 지역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해당 구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식지를 창간했었다. 당시 재능봉사로 초대 편집위원을 맡았는데, 최근 300호 발간 기념으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했다. 소식지에 기록된 편집위원 이름을 보고 수소문하여 연락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사회

복지사로서 가졌던 사명감,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기억에서 소환할 수 있었다. 지나온 나의 이력을 돌아보게 되었고, 잊지 않고 기억해 준 분들로 인해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의 하루 접속자 수는 8만 명을 넘는다. 매일 봉사활동 기록은 문서로, 사진으로, 박물로 저장된다. 이야기로도 기억된다. 자원봉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일상에서 수행하는 자신들의 자원봉사활동도 기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구술자료와 인터뷰 영상, 현장 영상 등 수집 기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다. 시민들에게는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했을 수 있다. 단체·기업·개인 등의 기록은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보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자원봉사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되고 기록된 정보는 연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요 사건에 따른 공식적인 참여 현황과 활동사진 등 일부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특히 위기의 순간에서 공동체의 안일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경험자산으로 기록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2014년 자원봉사 기록물을 시민문화의 역사적 자

료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보존하고, 자원봉사 정책 수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아카이브를 개설하였다. 현재 1만7223건의 기록물을 등록하였으며, 연간 이용자 수는 9만 2645명이며, 30개소의 공동운영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26일, 자원봉사아카이브 소장기록물 중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132건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기록을 통해 한국의 자원봉사를 홍보하고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속에서 자원봉사는 어떻게 서로를 돕고,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록으로 기억한다. 특히 기록은 그 시대 특유의 사회적 상식이 포함된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다. 따라서 자원봉사아카이브는 '기록 보존'의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기록에 담긴 '공유된 가치'를 확산하여 새로운 문화와 윤리를 생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아카이브(living archives)를 지향하고 있다.

10주년을 맞아 기록물을 활용한 특별 전시를 9월 한 달간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기억·기록·다시 빛나다'를 주제로 전시한다. 현장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를 기록으로 전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콘텐츠 중 하나는 123만의 인간띠로 기적을 만들어냈던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다. 만리포해변에서 기름 묻은 돌을 닦던 각자의 경험을 되살리고 추억으로 현대받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돕는 AI’로 사회문제 해결합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 인터뷰

류석영(51) 카이스트(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컴퓨터 속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다. 과학고를 나와 카이스트 전산학부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하버드대학교 선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마찰도 충돌도 없는 가상의 0과 1로 이뤄진 세상. 그 오묘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지남은 모르실 거예요.”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만난 그는 안경 너머로 반달웃음을 지었다.

공학자의 세상에 ‘비영리’라는 이질적인 세계가 끼어든 건 2022년.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의 사외이사를 맡게 되면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가들을 만나며 ‘기술로 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가진 기술을 비영리 조직에 연결해주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를 기획해 대성공을 거뒀다. 지난 6월 카카오임팩트는 2년간 재단 이사로 호흡을 맞추며 주요 프로젝트를 리드한 류석영 교수를 재단 이사장에 선임했다. 외부 인사가 이사회 리더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I 전문가들이 비영리재단에 모인 이유
-이사장 선임 후 석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7월부터 카카오임팩트 크루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8월 말에는 첫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가 새롭게 꾸려졌는데 어머머마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떤 분들인가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인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AI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문정 교수님이 이사회에 합류했어요. 고령자와 장애인 관련 AI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시는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수업을 하세요. 노인의 신체를 경험할 수 있는 옷과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경을 착용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고령자의 상황을 공감해야 더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예요. ‘AI 윤리’ 전문가인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인공지능학과 교수님도 이사로 오셨어요.”
-AI 전문가를 이사회에 대거 영입했군요.
“AI 기술뿐 아니라 윤리·철학·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요. 이은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도 이번에 이사로 모셨는데 커뮤니케이션 분야 석학이시죠. AI가 어떤 소통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어요. 육신나 카카오 CA협의체 ESG담당 리더도 이사회 멤버인데요. 카카오의 자원과 인프라를 재단과 어떻게 잘 연결해 변화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있어요.”
-비영리재단인 카카오임팩트가 AI로 뭘 할지 궁금해지네요.
“카카오임팩트는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어요. ‘돕는 사람’과 ‘돕는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고 있죠. 이걸 AI로 연결해 보면 결국 ‘돕는 AI’가 되겠죠. 비영리가 왜 AI를 하려고 할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비영리라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실패해도 되니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AI는 수학과 비슷해요. 모든 기술에

다 들어가 있죠. AI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로 돈을 벌거나 좋은 일을 하는 사례는 아직 별로 없어요. 비즈니스 쪽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움직이기가 훨씬 힘들죠. 반면에 저희는 재단이니까 빠르게 실험해 보고 안전하게 실패하면서 ‘돕는 AI’를 개발해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좀 막연한데 ‘돕는 AI’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분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퀴즈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그런 것도 돕는 AI죠. 카카오임팩트는 ‘돕는 AI’의 안전한 실험장이 되려고 해요. 여기서 안전하게 성공한 기술이 비영리를 이롭게 하고, 또 어떤 건 비즈니스로 발전해 영리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작은 기술도 선하게 쓰이면 세상이 바뀐다
-2년간 사외이사 하면서 재단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너무 잘 아시네요.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많이 배웠죠.”
-어떤 걸 배웠나요.
“처음에는 비영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2022년에 사외이사가 되고서 처음 한 일이 ‘브라이언 펠로우’를 선발하는 일이었어요. 지원서를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재단에 막 졸랐어요. 이분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요.”
-어떤 분들을 만났나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연구자들, 유기동물의 입양을 돕는 앱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

났습니다. 젊은 정치인을 후원하고 키우는 플랫폼을 만든 대표님도 만났어요. 이분들처럼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 도울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저희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알려주기로 했죠.”
-드디어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군요.
“네 드디어. 카이스트 학생들이 직접 브라이언 펠로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는 프로젝트를 카카오임팩트에 제안했는데 바로 오케이 했어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3학년짜리 수업을 만들었어요. 54명이 정원인데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됐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9개 프로젝트가 가동돼 실제로 모두 개발이 이뤄졌어요.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학생들이 혁신가들을 만나 더 많은 영감을 얻고 도움을 받았어요.”
카카오임팩트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의 스케일 아웃을 준비 중이다. 류석영 이사장은 “다른 대학에서도 이 수업을 도입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0과 1로 이뤄진 세상에서는 모든 게 딱 떨어져요. 하지만 비영리 세상은 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비영리를 배우면 좋겠어요. 사람의 속도에 맞춰 기다리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이게 카카오임팩트가 꿈꾸는 혁신이 아닐까 해요.”
성남=김시원 대버터 기자

AI로 돌고래 지키고, 챗봇으로 유기동물 입양 지원

▶ 1면 ‘테크포임팩트’에서 계속
현재 AI 모델개발팀, 서비스팀으로 나뉘어 2개의 프로젝트에 14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있다.
DVA랩이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마크)다. 마크는 관광선박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한다. 5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규정이 있지만 비영리단체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DVA랩은 AI를 통한 정확한 영상 분석을 통해 돌고래와 관광선박 간의 실시간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영상분석 엔진을 경량화하고 웹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AI 기반의 영상분석은 여러 산업계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이른바 ‘돈 되는 기술’이다. 하지만 같은 기술이라도 공공영역에 활용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영상학과 전문의의 X레이 판독 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 교통관제 시스템에서는 차량의 흐름을 파악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DVA랩 랩장인 한서우 비즈트 CTO는 “드론영상 분석 기술은 돌고래 서식지 보호뿐 아니라 산림 보호를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비영리 영역의 임팩트를 확산하는 핵심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인공지능(AI) 캠퍼스에서 열린 ‘테크포임팩트 커넥트데이’에 참석한 개발자와 사회혁신가들. (사진 카카오임팩트)

기술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테크포임팩트 참가자 대부분 현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발 작업은 거의 평일 퇴근 이후에 이뤄진다. 프로젝트를 제시 기간에 끝내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 우혜진 포인핸드랩장은 “일과 육아를 하는 와중에 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팀원이 있을 정도로 동료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신기술이 아닌 맞춤기술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카이스트에 개설된 전산학부 수업인 ‘테크포임팩트 캠퍼스’가 그 출발점이다. 수강생들은 카카오 개발자 멘토와 함께 비영리단체를 위한 9개의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했다. 국내 최초 1형당

노환자 맞춤 애플리케이션 ‘데이스카우트’가 그중 하나다.
데이스카우트팀 학생들은 1형당노부터 공부했다. 1형당노는 침대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발생하는 2형 당뇨와 달리 먹는 음식의 성분에 따라 인슐린 양을 조절해 주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당뇨환자는 368만7000명. 이 가운데 1형당노환자는 4만4555명 수준이다.
김미영 한국1형당노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노 환자들은 음식마다 표기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계산하고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해서 혈당을 예측해야 한다”며 “성분별 함량을 제공하지 않는 식당 음식을 먹을 때는 추측과 경험에 의존해

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1형당노 환자 16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234건의 답변을 바탕으로 앱을 설계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식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음식성분표가 화면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과자 한 봉지의 전체를 먹었는지, 절반을 먹었는지 선택하면 영양성분별 환산값이 나온다. 다른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게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기능도 담았다. 이를테면 ‘혈당 늦게 오름’ ‘혈당 변화 적음’ ‘혈당 잡는 음식’ 등이다.
이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한 김지연 카카오 개발자는 “이미 시장에 나온 기술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1형당노환자 맞춤형 앱 개발 역시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데이스카우트 팀원으로 참여한 최우정씨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수업을 듣고 나서 화학과에서 전산학부로 전공을 바꿨다. 사람과 맞닿아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올해 4학년인 그는 “화학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전산학부에서 배운 기술로 누군가를 돕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에 보람과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흥진아 카카오임팩트 테크포임팩트 팀장은 “카카오 캠퍼스는 아직 사회로 나가기 전 단계인 학생들에게 기술을 통한 사회혁신 DNA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현재는 카이스트에 강의가 개설돼 있지만, 앞으로 전국 대학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동시에 캠퍼스 수료생들이 전국에서 배출되기 시작하면 멀지 않은 시점에서 커다란 시너지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카카오임팩트의 설명이다. 육신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은 “기술이라고 하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버튼 하나만 바뀌도 누군가에게 큰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돕는 사람”과 ‘돕는 기술’의 가치를 믿고 이를 지원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카카오임팩트의 미션입니다.”

시민들의 477가지 아이디어, 지구를 구하는 '씨앗'이 되다

숲과나눔 '폴씨' 7년 이야기

#시민 모임 '장마나라의 우산수리공' 구성원들은 매주 목요일 서울 망원시장에 모여 우산을 고친다. 전국 25개 제로웨이스트숍에서 보내준 망가진 우산들이다. 수리공의 손을 거친 우산은 다시 '리페어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동네숲탐조클럽'은 가까운 숲을 방문해 새와 나무 등 숲속 생물을 관찰하는 모임이다. 지난 5개월 동안 서울 봉산·매봉산 등지에서 여섯 번의 모임을 열었다. 전문가도 동행한다. 매번 10명 내외의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2시간이면 신청이 마감된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작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올해로 7년째 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사업 '폴씨'를 운영 중이다.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과 멘토링,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금은 13억원. 시민 1912명이 혼자서, 또는 팀으로 참여해 477가지 아이디어를 실험했다.

씨앗 하나가 가져온 변화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진 주제는 '쓰레기 줄이기'로 152가지 제안서가 제출됐



1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매봉산에서 새들을 관찰하는 동네숲탐조클럽 참가자들. 2 '장마나라의 우산수리공' 회원 신예원씨가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 있다. 3 카페라떼클럽은 '종이팩은 종이아 아니다' 포스터를 제작해 종이팩 수거 모델을 홍보했다.



2 '장마나라의 우산수리공' 회원 신예원씨가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 있다. 3 카페라떼클럽은 '종이팩은 종이아 아니다' 포스터를 제작해 종이팩 수거 모델을 홍보했다.

다. 집에서 쓰지 않는 그릇을 기부받아 대여하는 '그릇 도서관', 테이크아웃 시 텀블러를 대여해주는 카페, 못난이 과일로 제로웨이스트 맥주 만들기, 쓰레기 없는 피크닉 즐기기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이 밖에 생태(101개), 환경교육(90개), 기후변화(53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소소도시는 서울 곳곳에서 '파클렛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파클렛(parklet)'이란 도로변의 주차 공간을 미니 공원으로 조성하는 팝업 행사다. 이

곳에서 로컬마켓·버스킹·화분만들기 같은 행사를 열어 주차장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이버들의 자원봉사모임 '파크다이브(PARKDIVE)'는 2020년 폴씨 4기로 선정돼 다이버 100명을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가로 양성했다. 다이버들은 국내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에서 30회 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에 제공했다. 국시모는 정부의 인

공여조 사업, 바다숲 조성 사업, 잘피 복원 사업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정인철 국시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육상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는데, 파크다이브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해양생태계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이 만든 솔루션을 정책으로

폴씨에서 검증된 아이디어는 숲과나눔의 다음 단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

디어를 사업화하는 '폴꽃', 전국으로 모델을 확산하는 '폴숲'이다. '초록열매'는 정부·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단계다.

종이팩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페라떼클럽' 활동도 폴씨 사업에서 초록열매를 통한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 2019년 카페라떼클럽은 14%에 불과한 종이팩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광주광역시 카페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카페에서 종이팩을 잘 씻어 내놓으면, 시민들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하고, 이를 마을의 필요한 기관에 기부하는 모델이었다. 카페라떼클럽 모델은 숲과나눔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초록열매 사업으로 추진된 정책포럼에서는 기업·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모여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지난 6월에는 이렇게 도출된 다섯 가지 정책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디어를 그냥 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환경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청년·생물 다양성·자원순환·기후위기·환경복지 등 분야별로 특화된 폴씨 지원 사업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동네 장사로 번 돈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착한가게'

서울 마포구에서 양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주성준(56) 대표는 월 10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햇수로 5년째, 누적 기부금은 4500만원에 달한다. 기부를 시작한 건 2020년 11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당시 학교마저 폐쇄되면서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신의 아픔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기부는 가게 이름으로 하기로 했다. 주 대표는 "장사를 하다 보면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월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가게 이름을 걸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임대인을 만나고,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준 덕분"이라며 "지역사회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장사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주 대표가 참여 중인 기부 프로그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다. 자영업자가 매달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 주민을 돕는 데 사용된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63곳이 가입 신청서를 냈다. 이 중 28곳은 주 대표처럼 월 100만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고액기부 가게다.

업종은 병원·학원·카페·약국·미용실·주유소·PC방 등 다양하다. 같은 업종이나 브랜드 가게 대표들이 단체로 가입하기도 한다. 서울 소재 동대문엽기떡볶이 18개소, 하이모 62개소 등이 단체 가입을 한 경우다. 2020년에는 대한제국협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가입 업체에 제공되는 현판. [사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 노원·도봉구지회에서 6개 베이커리가 함께 기부를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34년째 과자점을 운영 중인 민부근(70) 대표는 "오래전부터 지역 복지관에 빵을 기부해 왔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가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상점 앞에는 사랑의열매 로고와 '착한가게'라고 적힌 현판이 붙는다. 이 현판을 보고 기부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윤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은 "착한가게는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2006년 시작됐다"며 "국내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 지금도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소셜섹터 NOW

2030 활동가 모임 'D.MZ(데미지) 6기
다음세대재단이 2030세대 소셜섹터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MZ' 6기 정규모임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동락가'에서 열리며, 또래 활동가들이 모여 일과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눈다. 9월 한 달간 3회차로 진행된다.

'제26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 시상식
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자원봉사대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의 우수 봉사자를 선발해 장관상 및 금상 10건, 은상 20건을 시상한다.

'서울 2024 홀리스월드컵' 개막
전 세계 주거 취약계층의 축구대회인 '홀리스월드컵'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2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46개국 390 경기를 치른다. 행사를 주최하는 빅이슈코리아는 스폰서를 모집 중이다.

혁신 칼럼

복지정책 중복 지원, 사각지대는 예외로 해야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단골 기사 중 하나가 '고독사' '생활고 비판' 등을 타이틀로 한 복지사각지대 이야기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힘들고 우울한 단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내 주변에서 찾기 힘든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작은 빌라에 사는 6세 아이를 둔 어느 평범한 가족 이야기다. 특별한 것 없던 이들 부부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다툼이 거듭될수록 아이는 혼자 남겨졌다. 부부의 외박과 가출은 반복됐고, 이들에게 아이는 서로의 짐이었다. 혼자서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는 동네 편의점을 수시로 드나들며 김밥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다 못 한 편의점 주인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무소로 연락했고, 아이는 위

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편의점 주인이 사각지대 발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가정의 위기 상황에 일일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바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반장·집배원 등 지역주민을 '발굴자원봉사자'로 조직하고, 이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를 발굴한 후, 공공과 협력해 긴급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좋은이웃들의 연간 봉사자는 6만8000여명, 발굴 실적은 3만7000여건, 자원연계 실적은 16만7000여건 규모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2023년도 동사업 국고예산이 약 26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마중물로 민간

자원을 개발·연계한 금액은 95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공공차원에서 수행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 중복 여부 논란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는 '보완재' 역할이 필요하다. 다른 복지정책들은 중복 여부를 따져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옳다. 예외가 있다면 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이다.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중복'적으로 해야 한다.

공공이 '씨줄'이면 민간은 '날줄'로 짜야 완전한 안전망이 만들어진다. 한 쪽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송파세 모녀 사건' 등과 유사한 내용을 매일 접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좋은이웃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국 시군구 단위의 네트워크가 조직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과 함께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역할을 기대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조금 느린’ 인턴들의 회사 적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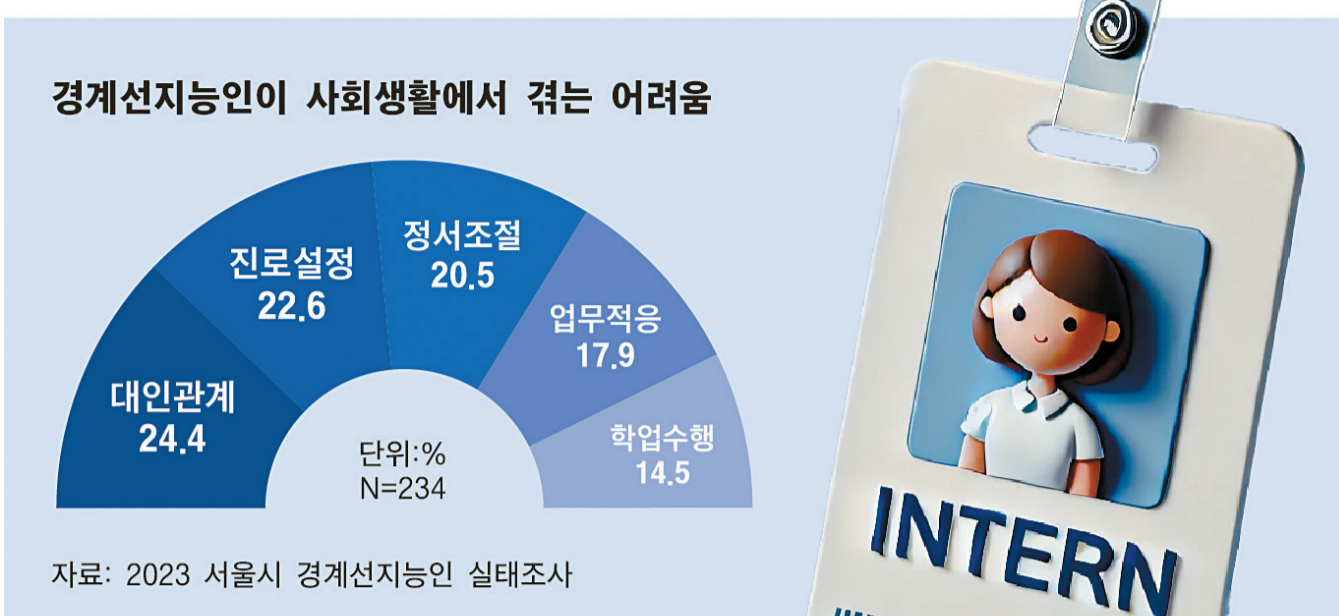
이지영(32)씨는 경계선지능인이다. 지난 6월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IT 회사에 인턴으로 출근한 이후 5주간 매일 ‘업무 일지’를 썼다. 종이에 손글씨로 한 번, 노트북에 한글 파일로 한 번 더 썼다. 업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곳은 AR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이해하는 게 느려서 같은 속도로 업무를 하려면 두 배씩 적으면서 복습을 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해 학습이나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는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지영씨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분명 다른 사람들과 어딘가 다른 것 같았다”며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사무직 취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턴 생활은 지영씨에게 전환점이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에 익숙해졌고, 직접 낸 몇 가지 아이디어는 “충분히 상용화할 만하다”고 칭찬도 받았다.

지영씨가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 지난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업무역량 강화교육 및 일경험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서다.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첫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민센터), 청년재단 등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맞춤형 진로 컨설팅 ▶직무 교육 ▶인턴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장진숙 민센터 자립지원팀장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정서적 민감성이 높아 작은 비판에도 쉽게 위축되고,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느리다”고 했다. 학창시절부터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듣다 보니 조금이라도 강압적이거나 재촉하는 분위기에서는 쉽게 얼어붙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계선지능인의 이런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진행했다. 장진숙 팀장은 “직무 교육을 할 때도 최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단계별로, 천천히 반복해 보여주면서 강의했다”면서 “보조강사도 옆에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 ‘다음 시간에 또 가르쳐주겠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했다”고 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래들과 친목을 쌓은 경험도 지영씨에게는 새로웠다. 지영 씨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긴 했지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었다”며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장진숙 팀장은 “학생들이 서로 번갈아 밥이나 커피를 사는 등 사회성이 필요한 행동도 자

연스럽게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인턴 실습에는 총 6명이 참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섭외한 3개 기업에 2명씩 배정됐다. ‘직무지도원’이 인턴 실습생들의 업무를 곁에서 도왔다. 실습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느린 인턴’들을 도왔다. 지영씨 사수였던 김규연 아이유아이 대리는 “지영씨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유튜브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징을 공부했다”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싶었다” 했다. 초반에 주눅 든 모습을 보였던 지영씨가 인턴을 마칠 때쯤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된 것도 사수의 칭찬과 배려 덕분이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 연구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은 학령기부터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해 타고난 능력에 비해 발달이 더욱 더딘 측면이 있다”며 “성인이 된 이후라도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면 그동안 정체됐던 지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과 직업훈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는 더버터 기자

기업 사회공헌, ‘평범한 영웅’에 주목하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평범한 영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잇따라 펼치고 있다. 소방관·사회복지사·의료진·경찰관 등 ‘돕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국내 사회서비스 근로자 500여 명이 한껏 들뜬 표정을 모여들었다. 강원랜드의 사회공헌 사업인 ‘영웅쉼터 힐링캠프’ 첫날. 복지 현장을 누비는 사회복지사,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관, 바다를 지키는 해경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강원랜드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2박 3일간 쉼을 제공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복지사·소방관·동해해경 등을 대상으로 열었고 올해는 격오지 근무 군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참가자들이 가족·동료와 함께 트레킹, 숲속콘서트, 액티비티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원랜드는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에게 매년 5000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객실 나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객실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영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팀장은 “체면 차려하며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퀴즈도 적극적으로 풀면서 즐겁게 지냈다”며 “소방관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가 지난 2018년부터 무상 제공 객실은 2만1274개에 이르고, 총 6만2633명이 참여했다. 금액으로 환산



[사진 소방청]

하면 30억원 규모다. 안기태 강원랜드 ESG상생본부장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시대 영웅을 발굴하고 재충전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각 분야의 ‘영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24년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최우선 가치로 꼽히는 ‘안전’과 ‘재난구호’를 테마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초 발표한 ‘2023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향후 관심을 두고 활동해야 할 사회공헌 분야로 안전·응급·재난구호(5점 만점에 4.31점)가 환경보호(4.49점), 고용·노동·인력개발(4.37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에쓰오일이 2006년 시작한 ‘소방영

웅지킴이’ 사업은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소방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소방영웅 시상식을 열어 상금을 전달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자녀 장학금과 위로금,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지난 18년간 소방 가족 3400여 명에게 100억원이 지원됐다. 최근 소방영웅에는 지난 7월 한강에 투신한 중년 남성을 구조하는 등 지난해에만 150여 명을 구조한 권태진 서울119특수구조단 소방위, 해운대 호텔 화재 당시 동료들과 함께 215명을 구조한 정형호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소방위 등이 선정됐다.

2008년부터는 ‘시민영웅’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16년간 시민영웅 308명을 발굴해 상금 20억원을 시상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지하차

도 침수 당시 747번 급행버스를 몰던 고(故) 이수영씨도 올해 초 시민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버스가 물에 잠기자 승객들을 밖으로 내보내던 과정에 숨졌다.

영웅지킴이 사업은 2013년 ‘해경영웅’으로 확대됐다. 지난 12년간 834명의 해양경찰 가족에게 총 22억원을 후원했다. 지난달에도 후원금 3억2500만원을 해양경찰청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공무 수행 중 다친 해경의 치료비, 순직 해경 유자녀 학자금, 해경 영웅 시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애쓰는 영웅들의 활약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커다란 등불”이라며 “우리 사회 영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웅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사회공헌 파트너와 기업의 만남 ‘2024 파트너스데이’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들과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가진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가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다.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는 사회적 가치 확산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 파트너들을 연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200여 곳의 공공기관과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혁신 조직이 행사에 참여해 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공헌센터와 더버터가 주관하며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분야의 ‘협력(collaboration)’을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패널로는 나영훈 포스코 사회공헌그룹장, 육십나 카카오펙트 사무총장, 이상현 행복나눔재단세상파밀티 본부장이 참여한다. 모더레이터는 김시원 더버터 대표가 맡는다.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공헌 사업을 제안하는 발표회도 진행된다. ▶한마음혈액원 ▶케어로그 ▶시온빌 자립생활관 ▶오션캠퍼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복지회 ▶도만사(도시건축연구소) ▶의성노인복지관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 ▶따뜻한동행 ▶물결2리 주민자치위원회 등 10곳이 참여한다. 관계자들이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에서 생중계된다.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bit.ly/24partn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경쟁하지 말고 차이를 만들어라

혁신을 만나다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



서울 성동구에 있는 MYSC 사옥 '메리 히어(Merry Here)'에서 만난 김정태 대표는 "다른 투자사와 경쟁하기보다는 '차이점'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서 "기존 시장이 못 보는 것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 좋은 창업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수열 더버터 기자

해외 투자자들의 네트워킹 현장. 김정태(47) MYSC 대표의 명함을 받아든 외국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묻는다. "뭐 하는 회사인가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임팩트투자사인데 직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질문자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 커진다. 명함과 김정태 대표의 얼굴을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니 한 마디 한다. "대단하네요."

MYSC는 아시아 최대 규모 초기투자사이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다. 사회·환경적인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임팩트스타트업'을 키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한다. 9월 현재 임직원 수는 82명, 누적 투자 건수 190건에 운용자산은 900억원에 달한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옥 '메리 히어(Merry Here)'에서 만난 김정태 대표는 "직원 수가 많다는 게 해외에서는 확실히 '와우 포인트'인 것 같다"면서 "초기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이 어려운데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 자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MYSC 대표직을 맡은 지 올해로 10년째다. 통장 잔고 600만원이던 회사를 지금 규모로 키웠으니 내세울 법도 한데 직함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느 자리에서든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 김정태'라고 저를 소개해요. MYSC 대표라는 말은 그다음에 하죠. 혁신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게 제 본질이에요(웃음)."

안 될 거라는 마음을 넘어선 순간

-지난해 초에 만났을 때 '직원 100명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죠.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조직이 달라진다는 '혁신'의 원칙이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반드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2018년 17명 규모였던 구성원을 2020년에 40명, 2023년에 60명까지 늘렸어요. 70명이 되면서 임계점이 왔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요.

"그 시점부터 '창의적 혁신'이 가능해졌거든요. 지금 파트너 7명이 기존 사업에서 손을 떼고 각자 해보고 싶은 사업을 알아서 해보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작을 땐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여전히 100명이 목표인가요.

"전혀요. 작년까지는 규모나 숫자에 집착하지만 이제 그런 건 저희에게 무의미해졌어요. 얼마나 더 커지는가보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졌어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거죠."

-'폭풍 성장'이라고 할까요. 몇 년 새 정말 많이 큰 것 같긴 해요.

"2017년에 저희가 30억~40억원 정도를 운용했어요. 그때는 그것도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웃음). 당시 제가 직원들 앞에서 '우리의 목표는 운용자산 500억 원입니다'라고 했더니 다들 막 웃었어요. 꿈을 크게 갖는 건 좋지만 좀 심한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화내셨어요.

"아니요(웃음). 저도 500억원이 높은 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3년 전에 이미 그 벽을 넘어버렸죠. 올해까지로 임팩트투자 '시즌1'을 마무리할 생각이예요. 목표는 투자 기업 200개, 총 운용자산 1000억원으로 잡았는데 거의 달성했죠."

-'시즌2' 목표는 더 높겠죠.

"제가 2000억원으로 목표를 잡았거

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번에는 아무도 안 웃어요. 해볼 만하겠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넘어선 게 그저 숫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안 될 거라는 마음, 그 자체를 넘어선 거예요."

지표 넘어 가치를 보다

김정태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공부했다. 같은 대학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뒤 시민단체, 국제개발NGO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서른 살에 UN거버넌스센터에 입사했다. 첫 직장이었다. 5년간 근무하며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1년 영국으로 건너가 헐트 국제경영대학원 소셜엔터프라이저십(사회적기업가정신) 석사를 마쳤다. 2012년 국내 최초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 회사이자 임팩트투자사를 표방하는 MYSC에 이사로 합류했고 2014년 대표이사가 됐다.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2013년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폐업 직전까지 갔어요. 2014년 대표를 맡았는데 직원은 다섯 명이고 통장에는 돈이 600만원밖에 없어서 대표 월급부터 없었어요. 지방에 있는 마트에 가서 강의를 하고 받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심각했네요.

"하필이면 그 무렵에 국내 그룹사 4곳에서 임원급으로 출근하라는 오퍼가 온 거예요."

-기로에 섰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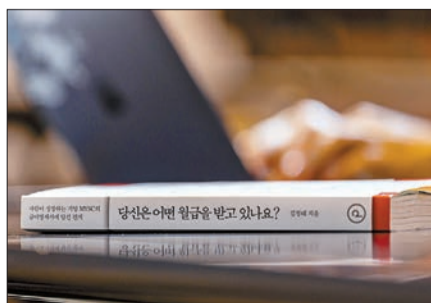
"역설적으로 그때 모든 게 명료해졌어요. 왜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우리가 하려는 일이 그만큼 값어치 있는 일인가? 남아있던 약간의 고민이 탁탁 털려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론 잘 풀렸네요.

"그렇 리가요(웃음). 굴욕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네요."

-이야기해 보시죠.

"팁스(TIPS)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예비운영사로 합격했어요. '대표적인 투자 사례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저



김정태 대표가 최근 출간한 '당신은 어떤 월급을 받고 있나요?'는 그가 6년간 매달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실어 보낸 편지 72통이 담겨 있다.

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니 대뜸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사회공헌사업을 하면 되지 왜 굳이 투자를 하느냐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창피했지만 속으로 삼켰죠. 우리가 맞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 제가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어떤 곳에 투자를 하셨길래요.

"발달장애인과 경력보유여성에게 AI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테스트웍스'가 대표적이예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큰 소리쳤는데 지금 너무 유명한 회사가 됐죠. 그래서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어떤 가설인가요.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는 곳에 혁신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웃음). 그렇게 투자한 데가 다회용기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시버스터즈'죠. 대기업과도 협력하면서 엄청나게 잘되고 있죠."

-반골 기질이 있는 건 확실하네요.

"초창기에는 '투자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저희를 낮게 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투자사와 경쟁하기보다는 '차이점'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지표를 넘어 기존 시장이 못 보는 것들을 보려고 했죠. 여기에 왜 투자를 안 했

을까. 투자를 못 받은 이유가 나중에는 성공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투자들이 하나씩 쌓여서 저희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죠."

사내혁신가 80명이 이끄는 회사

김정태 대표가 최근 출간한 '당신은 어떤 월급을 받고 있나요?'는 직원들에게 보낸 72통의 편지를 엮어 만든 책이다. 그는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낼 때 직원들에게 편지를 썼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급여명세서에 편지를 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일을 하면서 아무리 큰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도 급여명세서에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숫자와 화폐 가치로만 평가받죠. 원래는 기업의 'ESG리포트'처럼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가 통합된 급여명세서를 발행하고 싶었는데 그에 앞서 '이야기'를 담아보기로 했어요.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요."

-직원들의 반응은요.

"너무 좋았죠. 답장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살짝 힘들긴 한데 직원들 피드백이 오니 중단하기도 어렵고(웃음). 아뵐까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까요."

-사람을 키운다?

"2018년에 별 기대 없이 미국 '파타고니아' 회사를 방문한 게 전환점이 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인터널 임팩트(Internal impact)'였어요. 밖으로 위대한 임팩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내부의 임팩트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소셜임팩트를 외치면서도 정작 직원들에게는 해준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직원들을 '사내혁신가'로 키우는 프로젝트를 가동했어요."

-조직에 변화가 나타났나요.

"사내혁신가들이 집단적으로 에너지를 내면 회사가 돈을 벌게 됩니다. 작년 매출은 100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160억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조직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바뀐다. 지금 MYSC에는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내혁신가 8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테마는 글로벌이 되겠군요.

"서울-베트남-태국-싱가포르-일본-프랑스-미국으로 연결되는 'MYSC 네트워크 오피스' 계획하고 있어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미 MYSC의 주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 펀드를 만들고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할 생각이예요."

김정태 대표는 "규모에 집착했던 예전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꿨더니 관계가 달라졌어요. MYSC를 '친구'로 맞아주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아마도 전 세계 어디나 MYSC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환대해 주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MYSC의 사내혁신가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겠죠."

-대표님의 10년 뒤는 어떻게요.

"글쎄요. 여전히 '사회혁신가' 김정태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웃음)."

김시원 더버터 기자